

禪宗無門關：佛語心爲宗，無門爲法門。既是無門，且作曠生透。豈不見道，從門入者不是家珍，從緣得者始終成癡。任魔說法，大以無風起浪，好肉瘡。何況滯言句解會，掉棒打月，隔靴爬痒，有甚交涉。慧開紹定戊子夏，首蒙于東嘉龍翔，因衲子請益，遂將古人公案，作敲門瓦子。隨機引轉學者，竟爾抄錄，不覺成集。初不以前後敘列，共成四十八則，通曰無門關。若是箇漢不顧危亡，單刀直入，八臂那吒，他不住。縱使西天四七，東土二三，只得望風乞命。設或躊躇，也以惡客看馬騎，乾得眼來，早已蹉過。錄曰，大道無門，千差有路，透得此關，乾坤獨步。

책을 보려면 서문을 보라는 말이 있다. 무문관의 책은 이 서문과 제1칙에 있다. 제목부터 보자. 선종무문관(禪宗無門關) 선(禪)은 교(教)에 짝하는 말이다. 교(教)는 문(門)으로 돌려써 있다. 선종(禪宗) 연각(緣覺)의 소승에서 보살승의 대승에 이르기까지 삼승십이부승(三乘十二分教)의 계제(階梯)와 절차(節次)가 그것이다. 선은 이 겹겹이 쳐진 법의 문을 일거에 퓌고 한다. 진정한 소식은 팔만대장경의 장광설(長廣舌)을 벗어나(教外別傳) 문자의 미로 너머에(不立文字) 있다고 말한다. 삼장의 숲을 헤집던 사

### 한형조 무문관 탐방

#### 해개의 자서(自序)

들면 여덟팔 가진 나타(神將)도 막지 못할 것이며, 서역의 28조사와 중국의 6조사도 그 능률한 기상에 목숨을 구걸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혹여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창 몸으로 달리는 말을 보듯 눈감박할 사이에 벌써(진리를) 놓치고 말 것이다.

\*송하여 가로되, '큰 길에는 문이 없다. 그렇지 않은 길은 또한 어디에나 있다. 이 관문을 뚫고 나가면, 온 천하를 담당히 걸으리라.'

글은 모두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근본 취지는 1) 불입문자, 즉 언어에 매달려 진리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2) 그런데 왜 나는 공안의 문자를 고르고 거기다 경창이라는 별명까지 달았는가. 3) 이 책은 그렇게 엮은 방편의 집록이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손가락을 통해 달을 보고, 뺨뺨을 의지해 강을 건너듯 이 공안은 다만 '문을 두드리는 기왓장'일 뿐이다. 공안의 참구를 통해 자신의 본래 면목을 체회(體會)

하였다. 이모저모 초(抄)하다 보니 어느새 책 한 권 분량이 되었다. 처음부터 계통과 순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모이보니 모두 48칙이었다. 동종 그레(무문관)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용기있는 자, 위험을 돌아보지 않고 칼 한 자루 고나잡고 곧바로 뛰어 들면 여덟팔 가진 나타(神將)도 막지 못할 것이며, 서역의 28조사와 중국의 6조사도 그 능률한 기상에 목숨을 구걸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혹여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창 몸으로 달리는 말을 보듯 눈감박할 사이에 벌써(진리를) 놓치고 말 것이다.

\*송하여 가로되, '큰 길에는 문이 없다. 그렇지 않은 길은 또한 어디에나 있다. 이 관문을 뚫고 나가면, 온 천하를 담당히 걸으리라.'

글은 모두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근본 취지는 1) 불입문자, 즉 언어에 매달려 진리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2) 그런데 왜 나는 공안의 문자를 고르고 거기다 경창이라는 별명까지 달았는가. 3) 이 책은 그렇게 엮은 방편의 집록이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손가락을 통해 달을 보고, 뺨뺨을 의지해 강을 건너듯 이 공안은 다만 '문을 두드리는 기왓장'일 뿐이다. 공안의 참구를 통해 자신의 본래 면목을 체회(體會)



### “48칙 문없는 문 두드리는 방편”

문자 뛰어넘어 자성관문 뚫으면 온천하 얻어

사람들은 놀랍고 의혹에 찬 눈으로 다시 묻는다. 그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나고. 해개는 대답한다. '진리는 다름아닌 너의 '마음'에 있고 거기에 이르는 문은 없다!' 하여 무문관(無門關)은 문이 없는 본원의 진실과, 그럼에도 문을 일러 주어야 하는 방편의 필요가 탄생시킨 것이다. 서문은 바로 그 역설의 고민과 저작의 인연을 담고 있다. 문맥을 따라 번역해 보면 이렇다.

\*부처가 설한 가르침 가운데 핵심은 '마음'이다. 그 진리를 통하는 입구에는 (그러나) 문이 없다. 문이 없는데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옛 현자가 하는) 이런 소릴 듣지 못했는가. '문을 통해 들고 나는 것은 잡스런 것들이요, 인연을 통해 얻은 것은 마침내 부셔지고 말 것이다.' 가실 이런 이야기도 편지에 관히 일인종과요, 멀정한 살갓에 중기짜는 칼을 들이던 것. 하물며 언어문자에 매달려 지혜를 구하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리). 이는 동동이를 휘둘러 달을 치내는 것과 같고, 근 지러운 발을 구두 위에서 굽어대는 것과 같으니 (진리와) 무슨 절실한 교섭이 있겠는가.

\*소정 무자년(1228년) 여름, 동가의 용상사에서 대중들의 수좌로 있을 때, 나는 가르침을 청하는 남자들의 부락을 어찌지 못해, 옛 사람들의 공안을 '문을 두드리는 기와조각'으로 삼아, 각각의 근기에 따라 학인들을 인도

견성(覲性)하게 되면 온 천하를 독보(獨步)하는 대장부가 되겠지만, 문자에 미혹되고 자성과 유리되면, 즉 (머뭇거리면) 다시 생사의 윤회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4) 이 모든 소식을 노래로 요약하니 들어보라.

언어를 부정하는 것은 모든 통로를 차단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해개는 모든 통로를 차단한 자리에 온갖 통로를 다시금 열어 놓고 있다. 이 불가해한 설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체로금종(體露金風)! 해당(海棠)은 황산곡에게 '나는 정말 송진 같지 아무것도 없다'고 호소했다. 일체중생 모두가 불성을 갖고 있고, 삼라만상, 두두물물(森羅萬象 頭頭物物)이 불국토의 현현이러면 당연히 '문은 없다'. 그런데 지금 인간은 본래의 묘인 법계해탈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생멸회화의 소외와 고통 속에 있다. 분열된 세계, 이원화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이 있어야 한다'. 겨울 눈 쌓인 프락에 선 젊은이에게 달마가 물었다. '왜 왔는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리 갖고 오게.' '찾아보면 없습니다.' 이곳이 문 아닌 문이다. 무명의 바람과 그 흔적으로서의 망명은 나에게 언제나 남김없이 알려져 있다. 하여 길은 어디에나 통하고 문은 늘 열려 있다. 그렇 그 빛장(關)은 어디 있는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삼보

### 法數로 배우는 불교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승' 하면, 세속을 떠나 머리를 깎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비구(Bikkhu)와 비구니(Bikkhuni) 같은 스님만 지칭하는 것



### “한생각 깨달아 바르고 청정한 경지”

“佛·法·僧” 삼보 불자의 절대 귀의처

갑자만 본래는 불문에 귀의한 스님과 우바새(upasakha), 우바이(upa)와 같은 재가신도도 포함한 말이다. 이러한 삼보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세 가지로 다시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별상삼보(別相三寶), 동체삼보(同體三寶), 주지삼보(住持三寶)가 그것이다. 별상삼보는 불과 법과 승은 서로서로가 다른 존재이어서 별개의

증생들이 의지해야 될 형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도 절에 가면 실질적으로 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 가운데 동체삼보는 매우 특이한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체삼보는 중국선종(中國禪宗)의 해석법과도 일치되어 삼보를 외향적 귀의의 예배대상으로서가 아닌 수행자 자신이 체득해야 될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선종의 세번째 조사인 승찬선사가 자신의 불치병인 문동병 때문에 이조 해가선사를 찾아 갔을 때, 이때 해가선사는 “그대는 그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라”라고 한다. 승찬선사는 “지금 큰스님을 뵈옵고 승보는 알겠으나 불보와 법보는 모르겠습니다. 어느것이 불보와 법보입니까?”고 묻는다. 그러자 해가선사는 “마음이 부처며 마음이 법이니라.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요. 승보 또한 그러하니라”하고 대답한다. 이 경에는 육조 혜능스님의 법문에서도 나타난다. 혜능선사는 불법승 삼보를 해석함에 있어 “한생각 깨달아 있음이 불, 한생각 올바르게 법, 한생각 청정함이 승”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이와같은 삼보해석 방법은 실제적으로 대승으로 향해 있던 부처님과 진리와 수행자들을 자신의 일심내에 귀결시켜 일체화시키고 공동화시켜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열 [유마원원장]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 불교와 수학

⑤

#### 數와 철학

김용운

불교의 '모든 것은 공(空)·일체법(一切法)은 무자성공(無自性空)이라는 사상은 그릇된 교육 또는 사회적 통념 등에서 오는 모든 선입견을 배제하고 대상의 본질을 똑바로 접근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처음에 공(空)이 있었다'이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이 유태·기독교의 사상이다. 이들 생각이 시간관에 투영되면 불교의 '무시무종(無始無終)과 유태·기독교의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으로 대조를 이룬다.

인간이 수를 집합의 개수와 대응 시킴으로써 1, 2, 3, ...과 같은 수를 매우 자연스러운 발생 과정으로 형성함으로써 '자연수'라 한다. 그러나 '처음 공이 있었다'의 불교적 사유를 따른다면 자연수란 0, 1, 2, 3, ...으로 해야 옳다.

실제로 수학의 기초를 닦았던 수학자들중 페아노는 그것에 따르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가 훨씬 철학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우리는 이미 처음 수학을 대할 때부터 '0'을 배웠으나 상당한 수학 수준을 가졌던 고대 문명사회에서도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갈 때마다 새로운 단위와 글자를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일단 0을 도입하면 수 체계에서는 0, 1, 2, ..., 9까지 10개의 수만으로 어떠한 수라도 표시할 수 있다. 주판이 그 원리를 따르고 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 즉 0의 상태이다. 0이기에 어떤 수도 넣을 수 있다. 한글로 506을 나타낼 때는 '오백육'이므로 5006으로 잘못

#### 공사상 선입견 배제 대상접근 가능 수체계 '0' 개념 도입 획기적 발전

0의 기호가 없었다. 수(數)는 하나, 둘, 셋, ...이라고 셈하는 것이라고 믿어 온 선입견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대상을 현실적으로 취급하여 기호화할 때에는 철학적인 성찰이 앞서야 했다. 가령 중국의 경우를 본다면 '0'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一, 十, 百, 千, 萬, 億, 兆, 京, ...이라는 식으로 단위가 하나씩 올라갈 때 언제나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야 했다. 一이 10개이면 十, 十이 10개이면 百, 百이 10개이면 千, 千이 10개이면 萬... 이런 식으로 단위가 하나씩 올라

생이라도 할 수 있지만 '삼천삼백오십이' 곱하기 '이천칠십이'로는 좀처럼 셈할 수가 없다. 이 수체계는 기록용이지 계산용은 아니다. 요컨대 0의 발견 없이는 수학의 발전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0의 개념은 무명의 인도인에 의해서 발견되었으나 그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특히 불교의 공(空)의 사상이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즘은 정보시대라는데 그것은 전자계산기가 주역이다. 전자계산기의 수학은 0과 1 두 개의 수만을 이용하는 2진법의 수체계이다.

10진법	2진법
1	1
2	10=2×1+0
3	11=2×1+1
4	100=2 <sup>2</sup> ×1+2×0+0
...	...

이것은 11, 0+1+유, 무+kon, off로 대응한다.

E·토리첼리가 진공의 존재를 물리학적 방법으로 증명하기 전까지는 '진공(眞空)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유럽에 있어서의 형이상학상의 전통적인 명제였다.

'말씀이 계셨다'에서 시작되는 세계관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상풍토에서는 공을 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공이 모든 만물의 실상'이라는 철학을 갖는 정신풍토에서는 자연스럽게 0을 수로 취급할 수 있는 일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 장엄불사 조감도

### 스님의 생각을 현실로 표현해 드립니다.

(주)두풍산업에서는 확실한 조감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장엄불사안내 : ●목조 사찰건축, 콘크리트법당 및 묘사채 ●대불, 목불, 조각, 단집, 탁자, 문짝

책임은 확실히 지고 약속은 꼭 지키는 기업입니다.

株式会社 豊産業 대표 02) 432-7777  
 豊産業 서울 중랑구 망우동 486-8 (무풍 B/D) 전화 02) 439-3900

## 사주학 핵심비결

송월스님 著

###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책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이책을 펼쳐 보십시오.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이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까지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흥을 발휘 수 있어야 하므로 경술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신국판/값20,000원

관음출판사

전화 : 921-8434  
 팩스 : 929-3470

A5신/양장본 /35,000원